

매체와 메시지 : 미디어의 이해

미디어의 이해를 읽고...

과목명 : 매체와 메시지 : 미디어의 이해

학번 : 2014110115

학과 : 경영학과

이름 : 박규리

교수님 : 박성진

장자의 천지편에 '기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반드시 기계를 쓸 일이 생기고 기계를 쓸 일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계에 사로잡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인간이 기계를 쓰는 자로 '주체'인데 마지막 결론은 '객체'가 되어 기계에 사로잡힌다. 이 말은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 기계를 쓰는 자는 인간이고, 인간이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뜻대로 행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장자는 '인간은 주체'라는 상식을 과감히 넘어버린다.

이중텐 저자의 <이중텐의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다>라는 책에 이러한 구절이 나온다.

장자가 현대에 태어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만약 지금 살고 있다면 현대의 각종 기기를 보고 기절할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장자의 이런 사상을 단순히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반대'로 보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중에는 지금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은 진정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채소밭에 물을 주던 노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기계를 사용하면 반드시 기계를 쓸 일이 생기게 되고, 기계를 쓸 일이 생기게 되면 또 반드시 기심(機心: 꾀를 부리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기심이 생기면 순박한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심성이 순박하지 않으면 정신이 불안정하게 되며, 정신이 불안정하면 도가 깃들 수 없게 된다. 결국 우리가 본래 추구하던 행복은 오히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물론 인류에게 과학기술의 진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적어도 우리 생활은 이로 인해 편리해졌고, 더욱 빨라지고, 효율성도 훨씬 높아졌으며, 더욱 안전하고 쾌적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빠름, 효율성, 안전, 쾌적함 등을 위해 우리는 한편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¹

장자의 말은 기계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해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했지만, 이 글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껏 인류가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계를 발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편리함, 빠름, 효율성, 안전 쾌적함'과 같은 이유일 것이다. 기계를 만든 우리의 의도라면 우리가 기계를 발명하면 발명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나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기계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점만 안겨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다. "기계가 인류에게 나쁜 효과를 안겨 다 준다면, 기계를 만든 인간이 기계를 쓰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이것은 우리가 기계의 '주체'로서만 존재하고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미디어 이론의 대가 마셜 맥루한은 '미디어의 이해'에서 미국 경영인 사르노프의 연설을 비판한다. 사르노프는 "우리는 너무 쉽게 기술적 도구를 휘두르는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고, 대신 그 도구들의 속죄양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현대 과학의 산물들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 가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¹ 이중텐(2015), 이중텐의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유가와 도가의 논쟁 편』, 보아스

했고, 마셜 맥루한은 이 말을 '동유병 환자들이 말하는 방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한다. "사르노프는 그 어떤 기술도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에 단순히 그 기술만을 추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²라고 마셜 맥루한은 지적한다. 기술이 가치중립적이라는 사고의 맹점을 공격한 것이다. 또한 마셜 맥루한은 "새로운 기술이 일으키는 가장 명백한 폐쇄나 혹은 심리적 결과는 바로 그 기술에 대한 수요다. 자동차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동차를 원하지 않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전에는 아무도 텔레비전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처럼 그 자체에 대한 수요를 창조해내는 기술의 힘은, 무엇보다도 기술이 우리 자신의 신체와 감각들의 확장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³라고 기술 그 자체가 수요를 일으킨다고 역설하며, 기술이 인간 생활과 사고에 깊숙이 침투하여 사회를 바꾼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맥루한은 '기술결정론'의 사상을 가진 사상가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에서 발행한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단행본의 각주에서 맥루한을 '기술결정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다.

맥클루언은 미디어의 이해를 이 도전에 대한 응전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를 각성시키려는 목적으로 썼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 장에서 계속 언급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창조성의 보복으로 인한 붕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책에서도 계속 언급하듯이, 그는 오직 미리 준비되고, 지각이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도전에 대한 응전의 방법이 보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맥클루언은 이런 의미에서 미디어에 대한 교육이 현대 사회의 붕괴를 막는 중요한 임무임을 주장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우리에게 불가피한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책의 1부에서 제시된 내용을 생각해보면, 그는 '기술결정론자' 혹은 '기술 유토피아주의자'고 부르는 것은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비난이라고 생각한다.⁴

"오직 미리 준비되고, 지각이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도전에 대한(창조성의 보복으로 인한 붕괴) 응전의 방법이 보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구절에서 '기술결정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기술이 만드는 세상을 인간이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마셜 맥루한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장자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간 자신이 기술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기계에 소외된 인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셜 맥루한도 같은 주장을 한다.

이것(유보된 판단의 기법)은 새로운 형식이 판단과 지각의 문을 닫아 버리는 동안 주의력을 누그러뜨리는, 감각 마비나 마취 효과라는 새로운 기술의 효과와는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의 머릿속에 새로운 기술을 주입시키는 데에는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외과 수술이 필요하고, 이 일은 앞서 논의한 새로운 기술 자체에 내재된 감각 마비 장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유보된 판단의 기법'은 도취를 거부하고 새로운 기술을 사회의 정신에 주입시키는 수술을 무한히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시한다. 새로운

² UM. 2011, p. 37

³ UM .2011, p. 146

⁴ UM. 2011, p. 155, 각주

균형 상태가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⁵

나는 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2000여년 전 장자의 생각을 지금까지도 실천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이유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다. 기술이 기계를 발명시키고, 기계를 쓰는 사람이 생겨나면, 다른 사람도 그 기계를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계를 쓰게 된다. 기계의 사용의 가속화, 필연성은 인위적으로 없앨 수 없는 것이다. 기계를 쓰지 않는다면, 나 혼자 불편하면 되겠지만, 그것은 산 속에서 혼자 삶을 영위할 때나 가능한 것이다.

한 글쓰기 모임에서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일부를 첨부한다.

"기계와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더욱더 가난해진다."

2000여년전 동양철학자 노자가 한 말이다. 나는 아직도 이 문구를 읽으면 소름이 돋는다. 2000년 전 인물이 어떻게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말을 현재 가장 잘 나타내주는 물건이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 한다.

(...)

컴퓨터를 모바일로 한다는 '휴대성'이라는 특징이 대중들의 많은 생활을 바꾸어 놓았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더 풍요로워지고 더 편리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자가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면 "내 말이 맞았지?" 하며 씩 웃을 것이다. 옛날에는 컴퓨터가 있었지만 적어도 밥 먹을 때는 일하지 못했다. 지금 삼성직원들은 밥 먹을 때도 업무를 본다고 한다. 옛날엔 메일 하나, 파일 하나 보내는 것이 길거리에서, 지하철 속에서 가능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옛날보다 더 빨리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옛날보다 더 시간이 남아야 정상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보다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일까?

더 빨라지고 편리해질수록 시간이 남는다. 문제는 그 시간이 내 것이 아니다. 그 시간은 다시 더 빨리 더 많이 일하는데 투여된다. 물론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세상을 살아갈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인간답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볼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 이 시대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⁶

기계에 대한 인간의 소외는 사회속에서 악순환의 굴레가 되어 나타난다. 인간은 그 악순환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기계에 대한 인간의 소외의 본질은 사실 기계가 아니라 인간에 있다. 편리함과 풍요로움, 또한 그것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이러한 문

⁵ UM. 2011, p.137 ~ p.138

⁶ 박규리, <노자의 조소>

제는 기계가 아닌 인간에 초점에 맞춰 해결해야 할 것이다. 기계를 만들어 내고, 사용하고, 그것을 보편화 시키는 것의 본질적인 목적이 인간의 행복, 평안임을 자각하고 기계의 사용을 그것만을 위해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